

연 상 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의 내용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수업방안연구

-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혜 정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의 내용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수업방안연구

-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

연 상 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혜 정

인 준 서

윤지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200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는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내용에 대한 비교를 제시하고, 또한 이에 따른 효율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연구하였다.

첫째,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를 제시해보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를 비교해 보았다.

둘째, 교과서에 수록된 악기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를 분류해보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를 비교해 보고, 음색이 비슷한 악기를 찾아 비교해 보았다.

셋째,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의 연주형태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의 연주형태와 서양 음악의 연주형태를 정리해보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 연주형태와 서양 음악 연주형태를 비교해 보았다.

넷째,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 중 극음악인 판소리와 오페라, 종교 의식 음악인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내용을 제시하고 비교한 후 효율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하고 예시 학습지도안을 연구하였다. 판소리와 오페라는 협동학습 방법으로,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는 ICT 활용 학습 방법으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내용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를 통한 수업은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는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수업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예시 지도안은 교수-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사가 음악 교과서라는 매개체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교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은 이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를 통한 다양한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2
3. 선행연구 고찰	4
II. 본론	7
1.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	7
1) 음악사	7
2) 악기	14
3) 연주 형태	20
2.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내용 비교를 통한 수업방안	24
1) 교수-학습 방법	24
(1) 협동학습	24
(2) ICT 활용학습	30
2) 내용 비교를 통한 수업방안	32
(1) 극음악- 판소리와 오페라	32
(2) 종교 의식 음악 -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	50
III. 결론	61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1>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중 분석 대상 교과서	3
<표 II-1>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의 비교	11
<표 II-2>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의 비교	19
<표 II-3> 한국 음악의 연주형태와 서양 음악의 연주 형태 비교	22
<표 II-4> 음악과 협동학습 모형	26
<표 II-5> ICT 활용 교육의 예와 수업의 효과	31
<표 II-6> ICT 음악 교수-학습 모형의 요소들	31
<표 II-7> 판소리와 오페라의 비교	34
<표 II-8> 교과서에 나오는 판소리	36
<표 II-9> 교과서에 나오는 오페라	37
<표 II-10> 판소리 <춘향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비교	42
<표 II-11> 협동학습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43
<표 II-12>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비교	54
<표 II-13> ICT 학습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5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에 살아갈 바람직한 인간상을 기르기 위한 음악 교육, 음악을 통한 심미적 경험과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한 음악 개념의 이해·가창·기악·창작·감상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 우리 음악 문화유산의 특질과 가치를 이해하여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 음악의 역할과 가치 이해를 통한 음악의 생활화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¹⁾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내용<중등 2001.3~>의 중점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 둘째,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 셋째, 활동 중심의 음악 교육, 넷째,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 다섯째, 타당성 있는 음악과 평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중점내용인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 안에는 ‘학생은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 중점내용인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 안에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여 우리의 음악문화 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문화 유산을 비교하여 각 음악문화의 음악적 특징과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음악과 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12]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중점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 하나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을 비교해 봄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낼 수 있고,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각 음악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7차 음악과 교육 과정은 음악 교육의 목표 외에 위와 같은 음악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음악 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내용들로 이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가에 따라 학교에서의 교육이 달라진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교사가 음악 교과서라는 매개체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는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내용에 대한 비교를 제시하고, 또한 이에 따른 효과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고등학교 음악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음악'²⁾에 8종 교과서가 있고, 선택과목 중 일반 선택 과목인 '음악과 생활'³⁾에 2종 교과서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음악'의 8종 중에서 <표 I-1>에 있는 5종

2) <표 I-1>의 5종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3종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박영사-이강을 외 3인, 대한교과서(주)-김성수 외 2인, (주)천재교육-백병동 외 4인

3) 2종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주)교학사-이용일 외 3인, 법문사-노동은 외 3인

교과서를 임의로 선택하여 분석·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I -1>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중 분석 대상 교과서

출판사	지은이
세광음악출판사	고춘신, 홍종건
현대음악출판사	윤경미, 문진
(주)두산	이홍수, 이성훈, 황병훈, 김향정
(주)교학사	정영택, 허화병
태성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위의 <표 I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는 5종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연구하였다.

첫째,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를 교과서 중심으로 중복되는 내용을 제시한 후, 시대별로 비교하였다.

둘째,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를 분류하고, 더 나아가 특징에 따른 분류를 하였으며,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 중 음색이 비슷한 악기를 비교하였다.

셋째, 한국 음악 연주 형태와 서양 음악 연주 형태를 설명하고 비교하였다.

넷째,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 중 극음악인 판소리와 오페라, 종교 의식 음악인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를 비교한 후 효율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예시 학습지도안을 연구하였다. 극음악인 판소리와 오페라는 협동학습 방법으로, 종교 의식 음악인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는 ICT 활용 학습 방법으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연구를 함에 따라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음악 교과서의 내용 중 같은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5종 교과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지도안은 직접 실습하지 않은 예시 학습지도안이며, 학습지도안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제시된 주제와 목표에 의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중 협동학습과 ICT 활용학습을 선택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한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서정부⁴⁾는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활성화와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 음악을 서양 음악과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국 음악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의 한국 음악의 비중이 서양음악에 상응하게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지기 위해 음악교육의 재조명과 한국 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중심을 두었으며, 새로운 음악교과서의 편찬방향으로서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한국 음악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유정⁵⁾은 음율의 개념과 그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대표되는 각 음율들을 서양

4)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서양음악과 국악의 비교 고찰: 국악의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5) “서양음악과 한국전통음악의 음율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음악과 한국전통음악에서 각각 고찰한 후 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음의 기본원리인 음율을 서양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이라는 양극의 배경에서 살펴보고 비교한 후 세계 음악사에서의 한국전통음악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함으로써 그 위치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정진균⁶⁾은 판소리와 오페라가 지닌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발달한 고유성을 판소리의 사설과 오페라의 대본에서 찾아 서로의 독창성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그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판소리와 오페라가 음악과 극의 결합이라는 점에 대해 공통성을 나타내 보이면서도, 창작과 형태 및 구성에 있어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오페라의 대본과 판소리의 사설이 가져다주는 이면적인 결과라고 하였다.

최락⁷⁾은 서양 음악의 발성과 판소리 발성을 비교·연구를 통해 서로의 발성을 좀더 자세히 알고 공통점과 장단점을 개발하여 우리에게 알맞은 발성법을 알아 보았다. 서양 음악 발성과 판소리 발성의 기본이 되는 호흡법, 발성법, 공명법, 발음, 음색 등을 중심으로 비교-연구하였다.

박경선⁸⁾은 불교의식 음악인 범패와 찬불가의 음악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는 서양음악 이론을 근거로 분석하여 분명한 범패와 찬불가의 특성에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범패는 전통적 미를 고수하고 있는 국악장르(한국 음악)에 포함되며 찬불가는 서양음악의 이론에 근거한 근대적 의미의 음악이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서양음악사에 있어서 근대음악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와 공통성이 있다고 말하는 범패가 구조적 측면에서 그레고

6) “오페라의 대본과 판소리의 사설에 대한 비교연구: 현제명의 오페라<춘향전>과 판소리 <춘향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7) “서양 기초발성과 판소리 발성의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8) “불교음악에 있어서 범패와 찬불가의 음악적 특성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98

리오 성가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서 비교에 관한 연구들로 대부분 가창영역, 감상영역, 기악영역, 감상영역으로 나누어서 다루어지는데 주로 감상영역을 다루는 논문에서 한국 음악과 서양음악의 비교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문으로는 정지민의 “고등 학교 1학년 8종 음악 교과서의 비교 분석: 감상 제재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원승희의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비교연구: 감상곡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박현준의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1학년 8종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김효주의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비교분석 연구 :감상 제재곡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에 관련된 것으로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을 비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을 비교한 연구들은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업방안을 연구하였다.

II. 본론

1.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음악사, 악기, 연주형태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하고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고, 각 음악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음악사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를 시대별로 비교해봄으로써 음악사 틀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틀의 개념을 바탕으로 음악의 변천과정과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되어 보다 포괄적이고 연계적인 음악사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5종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를 정리해보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를 비교해 보았다.

(1) 한국 음악사

교과서에 나온 한국 음악사는 크게 상고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현대시대로 나누어진다. 그 각각의 시대에 대해 수록된 음악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고시대(기원전~1세기 경)의 음악은 종교 의식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

했다는 배경이 설명되어 있다. 고구려에는 동맹(東盟), 부여에는 영고(迎鼓), 동예에는 무천(舞天)이라 불리는 제천 의식이 있었고, 추수를 마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남녀노소가 어울려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삼국시대는 고대음악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고구려에서는 거문고, 가야에는 가야금이 창안되어 그 시대의 음악을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의식 음악인 범패가 생겨났으며, 음악교육기관인 음성서가 설치되었고, 외국과의 정치·문화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 서역의 음악이 전래되었으며, 삼국의 음악이 중국, 일본에 진출함으로써 국제교류시대가 전개되었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고대시대의 음악은 향가와 화랑의 전통, 팔관회와 연등회 등 통일신라의 유품이 강하게 전승되는 한편, 중국의 아악이 전래되어 향악, 당악, 아악의 전통이 정립되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대악서'와 '전악서'를 설치하여 국가적으로 음악을 관장하였고, <청산별곡>, <서경별곡> 등의 가요도 성행하였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때에 박연이 악기를 개량하고, 악곡을 짓고, 악제를 개혁함으로써 한국 음악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며, 정간보를 창안하여 <여민락>, <정대업>, <보태평> 등의 곡을 지었고, 특히 성종 때에는 <악학궤범>이 편찬되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영산회상>이라는 음악이 발달하였고, 가사와 시조도 생겨났으며, 조선 후기에는 산조, 시나위, 민요, 잡가, 판소리 같은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음악이 크게 성행하였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일합방 이후 궁내에 구왕궁 아악부, 1911년에는 조선 정악 전습소 등의 음악 교육기관이 생겼으며, 1951년 국립 국악원이 설립된 후 각 대학과 중·고등학교에 전문 교육 과정이 생겨 많은 국악인들이 배출되었다는 내용과 사물놀이가 새로

이 구성되고, 창작 국악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2) 서양 음악사

교과서에 나온 서양 음악사는 크게 고대·중세·르네상스시대, 바로크시대, 고전시대, 전기낭만파·후기낭만파시대, 국민악파 시대, 근대·현대시대로 나누어진다. 그 각각의 시대에 대해 수록된 음악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에는 일찍부터 음악이 발달하여 종교적인 행사와 제사 등에 쓰였으며, 그리스에서는 키타라와 아울로스라는 악기가 사용되었고, 피타고라스 음계 이론과 문자에 의한 악보가 만들어졌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세 음악은 6-7세기 그레고리오 성가의 확립되었고, 8세기에는 음의 높이를 대략적으로 표시한 네우마 기보법이 발달하였으며, 9세기 단선율 성가를 기초로 다성 음악 오르가눔이 생겼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르네상스 음악은 15세기경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을 받아 교회 음악은 물론 세속 음악도 크게 발전하였으며, 중세음악과 비교해 볼 때 르네상스 음악은 가사와 음악의 조화, 균형 잡힌 악곡 구성, 기악의 발전 등으로 대변된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바로크시대의 유럽은 중앙 집권적인 절대 군주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음악도 점차 그 중심 축이 궁정이나 귀족 사회로 이동되었다는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징으로는 화성음악이 생겨났고, 오페라, 오라트리오 등의 음악이 발달하였으며, 웅장하고 감정의 표현이 풍부하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고전시대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주제가 전개되는 소나타 형식이 생겨났고, 소나타와 실내악, 교향곡, 협주곡 등이 탄생되었으며,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화성적인 음악과 형식미가 중시되었고, 절대 음악이 많이 작곡되었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설명과 작품이 강조되고 있다.

전기 낭만파 음악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정치·경제·사회의 개혁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이상, 개성을 중시했으며 문학이나 회화 등에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이 표출되었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예술 가곡의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악곡을 많이 탄생시켰으며, 관현악 곡에서의 색채적인 표현과 연주 기교가 다양해졌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세기 후반의 후기 낭만파 음악은 전기 낭만파 음악에 비하면 규모가 큰 악곡들이 즐겨 작곡되었으며, 오페라도 매우 발전하여 이탈리아의 베르디와 푸치니, 프랑스의 비제, 독일의 바그너 등 뛰어난 작곡가들이 나타났다는 내용 등이 주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 바그너는 '유도동기(라이트모티브)'⁹⁾라 불리는 가락 구성의 새로운 수법을 반음계적 화성을 사용하여 발전시켰으며, 오페라의 완성을 지향하는 그의 악극은 많은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브람스는 낭만주의에 충실한 음악을 작곡하면서도 형식은 고전파의 양식을 따랐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악파 음악은 19세기에 러시아, 북유럽 등지에서 일어난 음악으로, 민족과 연관된 소재를 발전시켜 민족주의적인 음악 이념과 양식을 구축하였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 민족의 민요와 춤곡 등에서 음악적인 요소를 가려내고 고전 작품, 전설, 역사, 민중의 삶 속에서 작품의 표제나 내용, 형식, 기법 등을 택하여 민족적인 예술 음악을 탄생시켰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세기 말 이후의 음악을 근대 음악이라 하고, 제 1·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생긴 음악을 현대 음악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이 두 시대에는 사회가 급격히

9) 극 중의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 혹은 이념과 연결되어 있는 음악적인 주제나 동기 <서양음악사>, Donald J. Grout 저,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세광음악출판사

변화됨에 따라 음악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특정한 유파 대신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양식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인상주의음악, 표현주의 음악, 신고전주의 음악, 무조 음악, 실험주의 음악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3)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의 비교

위의 음악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를 <표 II-1>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는 시대를 중심으로 음악사적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단, 교과서마다 시대별의 연도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표기하지 않았다.

<표 II-1>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의 비교

한국 음악사		서양 음악사	
상고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행하던 의식음악 · 제천의식: 추수를 마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남녀노소가 어울려 노래와 춤을 즐김 (고구려 - 동맹, 부여 - 영고, 동예 - 무천) 	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음악, 그리스 음악 · 악기: 리라, 아울르스 하프, 오르간, 키라라
삼국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제1기 - 거문고 등장 제2기 - 서역악 도입 제3기 - 선진화된 음악문화 형성 · 백제: 일본에 많은 영향 끼침 · 신라: 가야금 등장 · 통일신라: 삼현삼죽 악기 사용 범패 등장, 음성서 설치 	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우마 악보 발달 · 그레고리오 성가 완성 · 그레고리오 선법

고려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악: 통일신라의 향악 계승 · 당악: 송나라 음악 · 아악: 중국 고대 의식 음악 · <서경별곡>, <한림별곡>, <정과정> 등의 가요 성행 	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르가눔 (4도병행) · 귀도의 계명 창법 · 다성 음악 대두 · 1선보(9세기) · 4선보(11세기) · 세속음악 성행
조선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 창안 - <여민락>, <정대업> <보태평> 등의 곡을 지음 - <악학궤범> 편찬 ·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중음악 축소 - 민간음악 확대 - <영상회상> 발달 - 가사와 시조 - 산조, 시나위, 민요, 잡가, 판소리 크게 성행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국민악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네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속음악 크게 발전 - 가사와 음악의 조화 - 기악의 발전 · 바로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페라, 오라트리오 성행 - 화성음악 발생 · 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타 형식 생겨남 - 소나타, 실내악, 교향곡 협주곡 탄생 · 전기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곡 발전 - 관현악의 발달 · 후기 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페라 발전 - 극음악, 표제음악 발달 · 국민악파- 민족주의적 음악
근대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왕궁 아악부 · 조선정악정습소 · 1951년 국립 국악원 설립 · 사물놀이 새로이 구성 · 창작국악 크게 활성화 	근대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상주의, 표현주의 · 민족주의, 무조음악 · 무조음악 · 신 민족주의 · 구체 음악, 전자음악 · 우연성 음악 · 컴퓨터 음악

<표 II-1>의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음악사의 상고시대와 서양 음악사의 고대시대를 비교할 수 있다.

각각의 이 두 시대는 음악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 되지만, 당시에 관한 음악자료는 따로 구하기 어려우므로, 대개 당시의 문화적 사료를 통해 음악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를 구하게 된다. 따라서 주로 농경과 채집을 하던 시기를 감안하여 사냥이나 농사에 관한 의식음악, 또한 이에 관한 음악과 춤이 어울려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 음악사의 삼국시대, 고려시대와 서양 음악사의 중세시대를 비교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거문고가, 신라에서는 가야금이 사용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 의식 음악인 범패가 생겨났다.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의 향악을 계승한 향악과 송나라의 음악인 당악, 중국 고대 의식음악인 아악이 주류를 이루었다. 서양의 중세시대에서는 종교 음악의 전성시기로 그레고리오 성가가 발달하였고, 네우마 악보가 발달하였으며, 다성음악인 오르가눔이 생겼다.

이 시기의 한국 음악사에서의 범패와 서양 음악사에서의 그레고리오 성가는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종교 의식 음악이지만, 범패는 불교 의식음악이고, 그레고리오 성가는 가톨릭 의식 음악이라는 것에서 비교할 점을 찾아 낼 수 있다.

셋째, 한국 음악사의 조선시대와 서양 음악사의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악파 시대를 비교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정간보가 창안되고 악학궤범과 같은 악서가 발간되었고 궁중음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일반 백성들의 감정을 표현한 민속음악이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서양음악사에서는 르네상스시대부터 국민악파 시대까지 볼 수 있는데, 가사와 음악의 조화(르네상스), 오페라 작곡(바로크), 소나타형식(고전), 예술가곡의 발달과 표제음악의 출현(낭만), 민족과 연관된 음악(국민악파) 등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국한된 한국 음악사에 비하여 다양한 시대권(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악파)을 맞은 서양 음악사가 음악적인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한국 음악사에서의 판소리와 서양 음악사에서의 오페라는 극음악이라는 것과, 노래와 이야기, 동작(움직임)의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할 점을 찾아 낼 수 있다.

넷째, 한국 음악사의 근대·현대시대와 서양 음악사의 근대·현대시대를 비교할 수 있다.

한국 음악에서는 궁중음악이 위축되어가고, 민간음악인 판소리와 창극이 크게 발전하였다. 또한 다양한 악기편성과 서양식 형식 구성, 문화적 다양성 등이 나타나는 창작음악이 만들어졌다. 서양 음악에서는 인상주의 음악, 무조음악, 전자음악, 우연성 음악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이 생겨났다.

이 시기의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를 비교해보면 기존의 음악 양식과는 다른 다양한 시도와 실험성, 즉 기존의 음악형식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는 다양성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악기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악기군의 특징에 따른 종류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고, 악기 종류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그 중에서 비슷한 음색을 가진 악기를 비교해봄으로써 악기에 따른 음색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종 교과서에 수록된 악기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를 분류해보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를 비교해 보고, 음색이 비슷한 악기를 찾아 비교해 보았다.

(1) 한국 악기

교과서에 나온 한국 악기는 일반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외에 <악학궤범>에 따른 악기의 분류, 재료에 의한 악기의 분류, 물체·진동의 원리에 의한 악기의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악기의 분류별로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악기는 일반적으로 아쟁, 가야금, 거문고, 양금, 해금, 향비파 등의 현악기와 향피리, 세피리, 단소, 대금, 중금, 소금, 태평소, 새납, 생황, 나발, 훈, 나각, 약, 적 등의 관악기, 그리고 박, 편종, 편경, 좌고, 징, 팽가리, 장구, 용고, 축, 어, 운라, 방향 등의 타악기로 분류되어 있다.

<악학궤범>에 따른 악기는 편종, 편경 등의 아악기와 박, 장구, 해금, 아쟁, 당피리, 태평소 등의 당악기, 그리고 거문고, 가야금, 대금 등의 향악기로 분류되어 있다.

재료에 의한 악기는 편종, 특종, 방향, 징, 팽가리, 나발 등의 금부(金部/쇠붙이)악기, 편경, 특경 등의 석부(石部/돌)악기,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비파 등의 사부(絲部/명주실)악기, 피리, 대금, 중금, 소금, 단소, 통소 등의 죽부(竹部/대나무)악기, 생황 등의 포부(匏部/바가지)악기, 장구, 장고, 절고 등 북 종류인 혁부(革部/가죽)악기, 훈, 부 등의 토부(土部/흙)악기, 박, 축, 어, 새납 등의 목부(木部)악기로 분류되어 있다.

물체·진동의 원리에 의한 악기는 북 종류의 막명악기(가죽), 타악기 종류의 체명악기(쇠, 돌, 나무, 흙), 현악기 종류의 현명악기, 관악기 종류의 공명악기, 전기 악기 종류의 전명악기로 분류되어 있다.

(2) 서양 악기

교과서에 나온 서양 악기는 가장 일반적인 악기 분류인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분류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서양 악기의 분류별로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양의 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하프 등의 현악기가 있고, 관악기 중 피콜로,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등의 목관악기와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등의 금관악기, 그리고 심벌즈, 팀파니, 마림바 작은북, 큰북, 실로폰 등의 타악기가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3) 음색이 닮은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

위에서 제시한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 중에서 현악기에 속하는 해금과 바이올린, 첼로와 아쟁과 관악기에 속하는 태평소와 트럼펫, 대금과 플루트, 그리고 타악기에 속하는 자바라와 심벌즈는 비슷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① 해금과 바이올린

해금은 2줄 사이에 말 꼬리털 활대를 사용하여 소리 내는 악기로 콧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며 정악과 민속악에 고루 쓰이며 관악 합주에도 편성된다.

바이올린은 맑고 부드러운 소리, 예리하고 높은 소리를 내며, 제1바이올린은 소프라노 역할, 제2바이올린은 알토 역할을 맡는다.

이와 같이 해금과 바이올린은 현악기 중 활현악기로 넓은 음역을 갖고 있고, 콧소리 같은 부드러운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첼로와 아쟁

첼로는 바이올린 족의 현악기 중 가장 강하고 부드러운 강약의 넓은 폭을 갖고 있으며, 거의 4옥타브에 걸친 넓은 음역도 갖고 있다. 풍부하고 힘차며 서정적인 소리를 내며, 주로 낮은 음역에서 사용된다.

아쟁은 개나리 나무로 만든 활로 7중을 마찰하여 장중하고 억센 소리를 내는 악기로 저음악기에 속한다.

이와 같이 첼로와 아쟁은 연주에서 낮은 음을 담당하며, 다소 거칠고 중후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③ 태평소와 트럼펫

태평소는 8개의 구멍(앞쪽 7개, 뒤쪽 1개)을 가진 관악기로 갈대로 만든 곁서를 꽂아서 분다. 국악 관현악의 음향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타악기와 더불어 더 멋진 효과를 내기도 한다. 구성지면서도 강한 음색을 지닌 태평소는 군악, 종묘제례악, 농악 등에 두루 사용되며, 날라리 도는 새납으로 불리기도 한다.

트럼펫은 서양의 금관 악기 가운데 가장 높은 음을 담당하는 악기로 컵 모양의 마우스피스가 붙어있다. 여러 조성으로 이루어진 이조 악기로서 오케스트라의 음향을 압도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으며, 관현악, 취주악, 협주곡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화려하면서도 부드러운 주법을 구사하며, 타악기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색다른 음색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태평소와 트럼펫은 관악기로서 합악과 관현악 합주곡에서 음향을 압도할 수 있는 매우 힘찬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음색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④ 대금과 플루트

대금은 1개의 청공, 1개의 취구, 6개의 구멍을 가진 가로로 부는 악기다. 젓대라고도 하며, 목은 황죽이나 쌍골죽으로 만든다. 음이 맑고 우아하며 음역이 넓어서 독주 악기는 물론, 합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플루트는 맑고 부드러운 음색을 내는 가로로 부는 관악기로, 독주뿐만 아니라 실내악, 관현악에 두루 쓰인다.

이와 같이 대금과 플루트는 관악기로써 맑고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음색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자바라와 심벌즈

자바라는 바라·발·제금이라고도 한다. 접시모양의 얇고 둥근 한 쌍의 놋쇠판을 마주쳐서 소리를 내며 절에서 쓰는 크고 무거운 바라로부터 향악무를 출 때 손가락에 붙들어 매고 치는 매우 작은 향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불교의 의식무용·무악 등에도 쓰이고 있다.

심벌즈는 놋쇠의 합금으로 만든 접시 모양의 원판으로서 두 개를 한 쌍으로 하며 그 크기와 무게는 다양하다. 심벌즈의 주법은 두 장의 심벌즈를 양손에 들고 서로 맞부딪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때에는 서로 스치는 식으로 부딪치게 해야 좋은 공명과 함께 소리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바라와 심벌즈는 타악기로써 놋쇠로 된 접시모양의 원판 한 쌍을 부딪쳐서 큰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음색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4)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의 비교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를 다음 <표 II-2>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표 II-2>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의 비교

구분	한국 악기	서양 악기
현악기	아쟁, 가야금, 거문고, 양금, 해금, 등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하프 등
관악기	피리, 단소, 대금, 소금, 태평소, 생황 등	· 목관악기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등 · 금관악기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등
타악기	박, 편종, 편경 등	심벌즈, 팀파니, 마림바 등

이와 같이 현악기 중 한국 악기로는 활로 줄을 마찰시켜 소리내는 찰현악기인 아쟁(7줄), 손으로 뜯어서 소리내는 가야금(12줄), 술대로 쳐서 소리를 내는 거문고(6줄), 4줄씩 14조의 줄이 두 개의 껍 위에서 소리내는 양금, 다양한 연주법과 자연스런 농현으로 다양한 악곡에 사용되는 해금(2줄) 등이 있으며, 서양 악기로는 G, D, A, E음의 4줄로 조현되는 바이올린, 바이올린보다 완전 5도가 낮은 C, G, D, A 음으로 조현되는 비올라, 비올라보다 한 옥타브 아래인 C2, G2, D3, A3으로 조현되는 첼로, 똑같은 악보를 연주했을 때 완벽하게 한 옥타브 낮은 E, A, D, G 선으로 조현되는 더블베이스, 46~47 현으로 되어있으며 페달로 이명동음이 가능한 하프 등이 있다.

관악기 중 한국 악기로는 죽관에 8개의 음공과 서(리드)를 꽂아서 부는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가 있으며, 5개의 음공을 가진 음색이 청아한 단소, 취구1개, 청공1개, 지공 6개로 되어있고 관현악 합주 시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정악과 산조에 다용하게 사용되는 대금, 취구 1개, 지공6개로 되어있는 소금, 씩씩한 음색으로 취타나 농악 등에 사용되는 태평소, 박통 위에 17개의 죽관을 꽂아 취구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유일한 화음악기인 생황 등이 있고, 서양 악기로는 맑고 부

드러온 음색을 내는 플루트, B♭조와 반음 낮은 A조의 두 가지 형태로 되어있는 클라리넷, 악기중 가장 특이한 음색을 가진 개성 있는 악기로 우수에 잠긴 음색 특히 목가적인 선율에 잘 어울리는 오보에, 이조악기가 아닌 C조 악기인 바순 등의 목관악기와 강한 소리를 내는 트럼펫(주로 B♭조 악기 사용), 취구에 입술을 대고 불 때 입술을 떨어 소리를 내고, U자관을 앞뒤로 넣거나 빼서 음높이를 조절하는 트럼본, 긴 관을 여러 번 겹쳐 말아놓은 원형 모양의 호른, 금관악기중 가장 큰 악기이며, 그래서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튜바 등의 금관악기가 있다.

타악기 중 한국 악기로는 관현악, 관악합주, 문묘악, 제례악 등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박, 12율 4청성에 맞추어 조율된 종들을 각퇴로 소리내는 편종, ‘ㄱ’자 모양의 돌을 12율 4청성에 맞추어 매달아 놓은 형태의 편경 등이 있으며, 서양 악기로는 놋쇠의 합금으로 만든 접시 모양의 원판으로서 두 개가 한쌍을 이루는 심벌즈, 어느 특정 음을 낼 수 있는 복인 팀파니, 실로폰의 일종으로서 외형은 닮았으나 소리는 한층 더 부드러운 마림바 등이 있다.

3) 연주형태

한국 음악의 연주형태와 서양 음악 연주형태를 비교해봄으로써 음악 연주형태의 틀의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틀을 바탕으로 어떤 곡을 들음에 있어서 그 곡의 연주형태를 구별할 수 있으며, 연주형태에 따른 그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종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 연주형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한국 음악의 연주형태와 서양 음악의 연주형태를 정리해보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의 연주형태와 서양 음악의 연주형태를 비교해 보았다.

(1) 한국 음악의 연주형태

교과서에 나온 한국 음악 연주형태로는 독주, 병주, 삼현육각, 대풍류, 줄풍류, 합악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음악의 연주형태로는 대금이나 단소, 가야금, 거문고 등을 혼자서 연주하는 것으로 보통 장구 반주가 따르는 독주, 단소와 생황, 양금과 단소 등 음색이 잘 어울리는 두 개의 악기로 연주하는 병주, 향피리2, 대금, 해금, 장구, 북으로 편성되며, 주로 무용 반주에 쓰이는 삼현육각, 향피리 위주의 관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합주인 대풍류, 거문고 위주의 현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합주로 거문고, 가야금, 양금, 세피리, 대금, 단소, 해금, 장구 등으로 구성된 줄풍류, 대규모로 편성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의 합주인 합악 등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2) 서양 음악의 연주형태

교과서에 나온 서양 음악의 연주형태로는 독주, 2중주, 3중주, 4중주, 5중주, 현악합주, 관악합주, 관현악 합주, 협주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양 음악의 연주형태로는 하나의 악기를 한 사람이 연주하는 독주¹⁰⁾, 두 사람이 각각 한 성부씩 연주하는 2중주(Duet),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연주하는 피아노 3중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연주하는 현악 3중주, 제1·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연주하는 현악 4중주,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연주하는 피아노 4중주,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으로 연주하는 목관4중주, 제1·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연주하는 현악 5중주, 피아노, 제1·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연주하는 피아노 5중주,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으로 연주하는 목관 5중주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고¹¹⁾, 합주로는 현악기만으로 이루어진 현악합주(String Orchestra), 관악기와 타악기로 이루어진 관악합주

10) 피아노와 오르간 외에는 대개 반주가 있지만, 무반주곡도 있다.

11) 3중주는 Trio, 4중주는 Quartet, 5중주는 Quintet이라고 한다.

(Wind Orchestra),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의 합주로 가장 규모가 큰 관현악(Orchestra)합주,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함께 연주하는 협주(Concerto) 등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3) 한국 음악의 연주형태와 서양 음악의 연주형태 비교

한국 음악의 연주형태와 서양의 음악 연주형태를 다음 <표 II-3>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표 II-3> 한국 음악의 연주형태와 서양 음악의 연주형태 비교

한국 음악 연주 형태	서양 음악 연주형태	연주방법
독주	독주	혼자서 연주하는 것
병주	2중주	두 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것
대풍류	관악 합주	관악기와 타악기로 연주하는 것
줄풍류	현악 합주	현악기로 연주하는 것
합악	관현악 합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연주하는 것

이와 같이 혼자서 연주하는 것을 한국 음악과 서양음악에서 독주라 하고, 두 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것을 한국 음악에서는 병주, 서양 음악에서는 2중주라고 한다. 또한 관악기와 타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한국 음악에서는 대풍류, 서양 음악에서는 관악합주라고 하고, 현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한국 음악에서는 줄풍류, 서양 음악에서는 현악 합주라고 한다. 그리고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한국 음악에서는 합악, 서양음악에서는 관현악 합주라고 한다.

평가: 이와 같이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음악사, 악기, 연주형태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하고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비교 내용을 토대로 한 수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의 비교는 각각의 음악사를 시대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의 틀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틀의 개념을 바탕으로 음악의 변천과정과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되어 보다 포괄적이고 연계적인 음악사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의 비교는 악기군의 특징에 따른 종류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고,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 종류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그 중에서 비슷한 음색을 가진 악기를 비교해봄으로써 악기에 따른 음색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 음악의 연주형태와 서양 음악 연주형태의 비교는 한국 음악 연주형태와 서양 음악 연주형태의 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틀을 바탕으로 어떤 곡을 들음에 있어서 그 곡의 연주형태를 구별할 수 있으며, 연주형태에 따른 그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는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중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있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한 음악 개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에 대한 비교를 해봄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고,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각 음악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를 통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될 것이며,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 수업이 될 것이다.

2.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내용 비교를 통한 수업방안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는 각 음악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으며,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 수업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 중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극음악인 판소리와 오페라, 종교 의식 음악인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비교한 후 이에 따른 효과적인 수업방안을 연구하여 학습지도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예시 학습지도안에서 사용한 교수-학습 방법 중 협동학습과 ICT 활용 학습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판소리와 오페라,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내용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1) 교수- 학습 방법

(1) 협동학습

협동학습은 소집단 구성원간의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개인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분담된 과제를 모든 학습자가 참여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사회적 기능을 직접 배우고, 균등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

이러한 협동학습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서로의 학습을 도와주어야 한다. (모둠간의 긍정적인 상호의존)

둘째, 모듬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 (개인적 책무성)

셋째, 학생들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보를 나누어 가질 뿐만 아니라 모둠의 구성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호 작용을 할 때 다른 모둠의 구성원들의 학습을 훨씬 많이 지지하고 증진시켜줄 수 있다. (언어적, 면대면 긴밀한 상호작용)

넷째, 적절한 지도력, 의사소통, 신뢰구축, 갈등해결 기술이 배워질 필요가 있다. (협동 기술의 사회적 기능 발전)

다섯째, 정기적으로 집단은 얼마나 함께 잘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더 나아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야만 한다. (집단 과정 평가)

이를 토대로 한 음악과 협동학습은 다양한 모형과 전략을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을 파악하여 개개인이 음악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이를 통해 음악성과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악수업은 음악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선정하여 교사의 주도로 수업계획 소개 및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후, 개별 혹은 소집단별 과제를 수행하여, 이를 발표하고, 평가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른 교사의 역할도 중요한데, 교사는 협동학습의 원리와 방법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무엇보다도 협동학습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충분히 훈련시켜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을 모니터 하면서 학생들의 집단 과정을 관찰하며 협동학습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계속 해 주어 이를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¹²⁾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음악과 협동학습에 따른 모형은 <표 II-4>와 같다.

12) 이경언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2002

<표 II-4> 음악과 협동학습 모형¹³⁾

1. 과제 :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에 따른 음악 과제
2. 음악적 목표: 음악학습의 목표 진술
3. 협동학습 목표: 사회적 기술의 목표 진술
4. 협동학습 구조: 적용된 협동학습 구조
5. 수업전략: 협동학습을 위한 수업의 재구성과 수업절차를 기술, 아래 항목의 내용을 포함. 1) 그룹 성원간의 긍정적인 상호의존 2) 개인적 책무성 3) 긴밀한 상호작용 4) 협동 기술의 발전 5) 집단과정
6. 평가 관점: 목표에 따른 평가 기준 제시
7. 협동학습 구조에 관한 설명: 적용된 협동학습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 돌아가면서 말하기, 집단탐구, 직소(과제 분담학습), 생각-짝-모듬, 인터뷰, 능력별 모듬학습(STAD) 등

위의 <표 III-5>에서 협동학습에서 제시된 ‘돌아가면서 말하기(Round Robin)’, ‘집단탐구(GI - Group Investigation)’, ‘직소(과제 분담학습)’, ‘생각-짝-모듬’, ‘인터뷰’, ‘능력별 모듬학습(STAD)’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¹⁴⁾

13) 석문주, “음악성 개발을 위한 초등학교 열린 음악수업에서의 협동학습 모형 및 전략 연구”, 2002, p12

14) 협동학습 구조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논문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김원선, “협동학습을 적용한 다양한 음악수업 지도안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3

① 돌아가면서 말하기(Round Robin)

이 수업모형은 모둠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다.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애쓰며, 심지어 전체적인 참여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한다. 특히 긍정적인 모둠 정체성 형성과 모둠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동기를 갖도록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협동학습에 대한 초기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개인적인 책임이 많아질수록 참여도는 증가하게 되며, 동등한 참여는 학생 각자로 하여금 성숙한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② 집단탐구(GI - Group Investigation)

이 수업모형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타협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며 타협의 과정을 통하여 학문적 지식을 배우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교사는 상담자, 자문자, 친절한 비평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 이외에도 과업, 집단활동, 개인의 학습 등에 대하여 개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수업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가 도전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가진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가 제기하는 쟁점을 탐구하기 위해 학생이 공부하기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학생은 그들의 탐구질문을 하위 주제로 분류하고, 하위 주제에 대한 선호에 따라 소모둠을 형성하게 된다. 모둠원들은 그들의 탐구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협동적으로 참여한다. 모둠원들이 그 결과들을 통합하고 연구하며 그들이 연구한 결과를 전체 학급에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모둠원의 협동적인 참여로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서로 의논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의사결정력에 도움이 된다.

③ 직소(과제 분담학습)

이 수업모형은 학생 개인이 불완전한 과제를 수행한 다음 다른 학생들과 나누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의존을 최대한 부각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과제분담 학습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는 과제 분담 학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과제분담학습 자료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가 학습 내용에 대한 소주제를 정리하고 과제 분담학습 자료를 준비한 후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수업 안내와 절차를 설명한다. 그리고 모둠원들에게 각각의 과제 분담 학습 자료를 배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각각 모둠에서 동일한 주제를 맡은 학생들끼리 전문가 모둠을 만들어 각자 학습한 내용을 나눈다. 이때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학습을 도와주면 좋다. 전문가 학습 활동이 마치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모둠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각자가 전문가 모둠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나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개인 내지 모둠 평가를 통하여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긍정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④ 생각-짝-모듬

이 수업모형은 협동학습에 경험이 없고 짧은 과제에 효과적인 모형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학생들은 학습 주제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각자 답을 생각하고, 짝과 같이 자신이 생각한 답을 이야기하고 토의하며 공유한 생각을 서로 나눈다. 그리고 나서 학생 전체 앞에서 발표를 한다. 교사가 반 전체에서 질문할 때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짝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미리 편안하게 발표하는 연습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반응의 질적 수준도 향상된다.

⑤ 인터뷰

이 수업모형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질문하고, 친구의 질문에 대답하는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업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짝을 짓는다. 한 명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나서 서로의 역할을 바꾼다. 이런 방법으로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고 받는다. 학생들은 인터뷰를 통하여 지식을 쌓아가게 된다.

⑥ 능력별 모둠학습(STAD)

이 수업모형은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여 모둠 내에서 협동을 유발시켜 학습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항상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모둠에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동기 유발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업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 4-6명이 한 모둠을 이루며, 집단의 성격은 이질적이다. 각 구성원 각자가 역할을 맡으며, 모둠의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되, 각자는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어진 과제가 잘 해결이 안될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자신의 성적보다 높은 성과를 내면 모둠에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낮은 학습자의 자아 존중감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음악 수업에서 협동학습의 적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방법과는 달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교사는 협동학습의 다양한 모형과 전략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다양한 수업전략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그

들이 가진 음악적 잠재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동학습의 특징인 그룹간의 상호의존성, 개인적 책무성, 긴밀한 상호작용, 사회적 기능 발전, 집단 과정 평가 등을 음악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해서 음악교육에 있어서 통합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음악과 협동학습에 있어서 교사들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계속해서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ICT¹⁵⁾ 활용 학습

21세기 사회는 지식(정보)의 산출과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극대화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컴퓨터 중심의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지식의 산출과 유통 혁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의 지식정보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급하고 있다.¹⁶⁾

ICT 활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서 출발한다. 학교는 인성교육·교과교육과 함께 지식과 정보의 생성, 처리, 분석, 검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 소양 교육·학습 및 일상 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통신 기술 활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가 요구하는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길러 주어야 할 책무를 가진다.¹⁷⁾

ICT 활용 교육의 예와 수업의 효과는 크게 멀티미디어 활용수업과 인터넷 활용수업에서 다음 <표 II-5>와 같이 나타난다.

15)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이하 ICT라고 표기함

16) 최은식, “ICT 활용 음악수업”

17) 교육부,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문서번호 81160-559

<표 II-5> ICT 활용 교육의 예와 수업의 효과

	멀티미디어 활용수업	인터넷 활용수업
활용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를 통한 학습 효과 · 텍스트의 링크 및 그림 제시 · 동영상 등의 수업 활용 · CD-ROM 기반의 학습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검색 · 정보교환 · 원격강의 · 자료추적
수업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전달의 용이성 · 생동감있는 수업 · 학습자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관심사에 따른 과제 부여 가능 · 24시간 항시 교육 체제 · 커뮤니티 가능 · 개별학습자의 참여 용이 · 개별, 또는 그룹별 지도 가능 · 자료추적 용이

ICT 음악 교수-학습 모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업과정과 음악학습 활동 영역 요소와 ICT 요소를 통합한 형태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 요소들은 서로상호관계를 나타내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 <표 II-6>과 같다.

<표 II-6> ICT 음악 교수-학습 모형의 요소들

	요소
수업과정	계획 → 교수-학습 절차 → 평가
음악학습 활동 영역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통합 수업
ICT 영역	정보탐색, 정보안내, 협력연구, 웹펜팔, 정보분석, 웹토론, 전문가와 교류, 정보 제작 등

18) 이경인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 2002, p225

음악 수업에서 ICT 활용 학습의 적용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개인의 경쟁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정보탐색, 정보안내, 협력연구, 웹펜팔, 정보분석, 웹토론, 전문가와 교류, 정보 제작 등을 통하여서 범교과적이고 포괄적인 통합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며, 모듈별 학습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음악이라는 교과 특성상 시각과 청각매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ICT 활용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전달이 용이해지고,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ICT 활용 학습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익히고, 계속해서 다양한 교수-방법이 연구·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내용 비교를 통한 수업방안

(1) 극음악 - 판소리와 오페라

한국의 음악인 판소리와 서양의 음악인 오페라는 극음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음악들은 구성요소에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비교를 통한 학습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판소리와 오페라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협동학습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① 내용 비교

먼저 교과서에 나오는 판소리와 오페라의 내용을 제시한 후 그 내용을 비교하였으며, 교과서에 나오는 판소리와 오페라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그 중에서

판소리 <춘향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선정하여 내용을 제시한 후 그 내용을 비교하였다.

가. 판소리

소리꾼(가수, 광대) 한 사람이 고수의 북 장단과 추임새에 맞추어, 긴 이야기 노래와 말로 엮어 가는 민속 예술의 한 형태다. 소리(노래)와 아니리(대사), 발림(몸짓)으로 이루어지며, 지역과 창법의 특징에 따라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등으로 나뉜다. 12마당 가운데 지금은 5마당 <춘향가>, <홍부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만이 전해지고 있으며, 장단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등이 쓰이고 있다. 판소리 창법은 극적인 표현을 나타내기 위한 강한 표현법을 사용하며 떠는 목, 꺾는 목, 평으로 내는 목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남도 민요의 창법과 비슷하다. 판소리를 부르기 전,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단가에는 <만고강산>, <죽장망혜>등이 있다.

나. 오페라(Opera)

음악, 연극, 미술, 무용, 문학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종합 예술이다.

오페라의 구성요소로는 막이 오르기 전에 극의 내용을 암시하는 관현악 곡인 서곡(전주곡), 막과 막 사이에 연주되는 관현악 곡인 간주곡, 중심 인물들이 부르는 독창곡인 아리아, 아리아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부르는 선율인 레시타티보, 2중창, 3중창, 4중창 등 몇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 중창, 극중의 군중들이 부르는 노래인 합창, 오페라 전체를 반주하며 극의 흐름과 분위기를 나타내게 되는 관현악이 있다.

오페라의 종류로는 주로 비극적 내용을 가진 큰 규모의 오페라인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 혹은 그랜드 오페라 (Grand Opera), 규모가 조금 작고 유쾌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오페라 부파(Opera Buffa), 소규모의 희극적 오페라인 오페

레타(Operetta), 바그너가 창시한 오페라의 새로운 형태로 아리아가 강조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중요시하며, 유도동기(Leitmotiv)를 사용하여 사건의 흐름, 인물의 성격, 생각 등을 음악으로 암시하며 진행되는 악극(Music Drama)이 있다.

다. 판소리와 오페라의 비교

한국의 음악인 판소리와 서양의 음악인 오페라는 극음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성요소에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판소리와 오페라를 다음 <표 II-7>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표 II-7> 판소리와 오페라의 비교

비교 내용	판소리	오페라
개념	한명의 소리꾼이 고수와 함께 벌이는 소리마당	음악, 문학, 시, 연극 등의 종합 예술 무대
역사	영조 30년에 유진한이 지은 춘향가로 미루어 숙종 전으로 추측	1597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됨
연주 장소	놀이채를 지불할 수 있는 서민들의 모임장소 혹은 양반집과 궁궐	오페라 가극장이나 음악 연주회장
곡목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적벽가, 수궁가 - 다섯 마당	마술피리, 아이다, 세빌리아의 이발사, 리콜레토, 투란도트, 라 트라비아타(춘희) 등
노래	소리	아리아
이야기	아니리	레시타티브
동작(움직임)	발림	연기
반주	북장단	오케스트라

선율	즉흥선율을 넣어 고정성이 적음	선율이 고정적
역할	1인 다역	1인 1역
청중의 반응	소리를 들으며 중간이라도 추임새로 적극적으로 반응함	아리아 직후 또는 막이 끝났을 때 박수로 반응함
기타	추임새 (고수가 흥을 돋구는 말)	서곡, 전주곡, 합창, 중창 등

판소리는 한국 음악의 극음악으로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와 함께 벌이는 소리 마당으로 영조 30년에 유진한이 지은 춘향가로 미루어 숙종 전에 생겨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로 서민들의 모임장소나 양반 집과 궁궐에서 연주되었다.

오페라는 서양 음악의 극음악으로 음악, 문학, 시, 연극 등의 종합 예술 무대로 1597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되었고, 오페라 가극장이나 음악 연주회장에서 연주되었다.

판소리는 소리, 아니리, 발림으로 구성되어있고, 오페라는 아리아, 레시타티브, 연기동작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소리와 아리아는 노래하는 부분을, 아니리와 레시타티브는 이야기하듯 부르는 노래 부분을, 발림과 연기는 동작(움직임)을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판소리와 오페라는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판소리의 반주는 고수가 북 장단으로 치고, 오페라는 오케스트라가 반주한다. 또한 판소리의 선율은 즉흥선율을 넣기 때문에 고정성이 적은 반면에 오페라는 주어진 선율을 그대로 부르기 때문에 고정적이다. 판소리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고있으며, 오페라는 한사람이 한 역할만을 맡고 있다. 청중의 반응 면에서 판소리는 소리를 들으며 중간이라도 추임새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오페라는 아리아 직후 또는 막이 끝났을 때 박수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판소리와 오페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라. 교과서에 나오는 판소리

교과서 나오는 판소리는 한 교과서 안에 판소리 5마당을 모두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한 두 곡 정도의 제재곡 외에는 참고곡이나 감상부분에 실려있는 곡들로 간단한 설명과 악보만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 비교적 따라 부르기 적당한 빠르기의 중중모리 장단의 곡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판소리를 다음 <표 II-8>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II-8> 교과서에 나오는 판소리

제목	곡 (교과서 출판사)	장단
심청가	범피중류 (태성, 현대) 인당수 (교학사)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 (태성)	진양조 엇모리 휘모리
적벽가	조조 패주 (태성) 공명의 높은 재조	중모리 중중모리
홍보가	화초장 타령 (태성, 현대) 박타령 (교학사)	중중모리 진양조
춘향가	춘향모 들어온다(태성) 긴 사랑가(태성) 자진 사랑가 (세광, 두산, 현대) 남원 경치 (세광, 교학사) 이별가 (세광, 두산) 천자뒤풀이 (교학사)	자진모리 진양조 중중모리 중중모리 중모리 중중모리
수궁가	용왕 특별 (교학사)	진양조

마. 교과서에 나오는 오페라

교과서에 나오는 오페라는 출판사마다 한 두 곡 정도의 제재곡 외에는 참고곡이나 감상부분에 실려있는 곡들로, 간단한 설명과 악보만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 비교적 가창하기 쉬운 부분인 아리아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오페라의 곡을 다음 <표 II-9>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II-9> 교과서에 나오는 오페라

제목	곡 (교과서 출판사)	작곡가
리날도	나를 울게 내버려두오 (세광, 현대, 교학사)	헨델
피가로의 결혼	이제는 못 날으리 (세광, 교학사) 포근한 산들바람 (태성)	모짜르트
카르멘	투우사의 노래 (현대) 하바네라 (두산)	비제
세비야의 이발사	나는 이 동네 약방의 감초 (현대) 방금 들린 그대의 음성 (현대)	로시니
라보엠	그대의 찬송 (현대) 내 이름은 미미 (현대) 무제타의 왈츠 (현대)	푸치니
아이다	청아한 아이다 (두산)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아! 그대였던가 (세광) 파리를 떠나서 (세광) 축매의 노래 (태성)	베르디
잔니 스키키	그리운 아버지 (세광, 현대)	푸치니

바. 판소리 <춘향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교과서에 나오는 판소리와 오페라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이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고 비교하여 한국과 서양의 극음악인 판소리와 오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A. 판소리 <춘향가>¹⁹⁾

판소리 춘향가의 음악적 짜임새를 극적 구성과 연관시켜서 살펴보면 춘향의 사랑, 춘향의 이별, 춘향의 시련, 춘향의 재회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네 부분은 '기, 승, 전, 결'로 대변되는 형식(흐름)의 틀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네 부분의 구조는 어느 유파에서나 마찬가지로 각각 한 시간이 넘는 길이로 짜여져 있다.

'춘향의 사랑'은 맨 처음(보통 초입이라고 함)부터 사랑가까지인데, 극적 배경 때문에 대체로 우조(힘차고 꺾꺾한 악상)와 평조(한가롭고 평화스런 악상)의 음악어법으로 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노래(명창)들은 '남원경치', '적성가', '추천목', '천자뒤풀이', '사랑가'들로 서로 이어지는데 '사랑가'의 비중이 가장 크다. '사랑가'는 진양조 장단에 얹혀진 '긴 사랑가'와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장단에 얹혀진 '자진 사랑가'로 나누어져 있어서 느리고 빠른 노래가 짝으로 구성되는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노래 형식과 같다.

'춘향의 이별'은 본관 사또가 서울로 가는 아니리 대목부터 이도령이 서울로 떠나는 대목까지인데, 전체가 설움으로 가득 찬 계면조(슬프고 애처롭게)의 음악어법으로 짜여진 판이 대부분이고 경드름(경조, 경기 지방의 음악 스타일을 닮은 가락)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는 유파도 있다. 극적 전개로 볼 때에는 단순한 이별 장면엔 불과하지만, 사랑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이별의 슬픔은 영원하다는 통념을

19) <http://www.dongchosori.co.kr/pansori>

상징하듯이, 그 심경을 노래로 표현하는 데에만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

‘춘향의 시련’은 신임 사또 도입 장면부터 ‘옥중가’까지인데, ‘신연맞이’, ‘기생 점고’, ‘춘향 잡으러 가는 대목’과 같은 희극적인 노래와 ‘십장가’, ‘옥중가’ 같은 비극적인 노래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춘향의 시련’부분은 각 유파가 극적 전개의 동기 유발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그 음악적 짜임새에서는 차이를 보여 준다. 그래서 ‘기생점고’의 장단 구성이 다르기도 하고 유파에 따라서 ‘쑥대머리’와 ‘귀곡성’이 첨가되기도 한다.

‘춘향의 재회’는 이도령이 과거 보는 대목부터 끝까지인데, ‘과거장’, ‘서리역졸 분발’, ‘농부가’, ‘박석고개’, ‘어사또 춘향모 상봉’, ‘어사또와 춘향의 옥중 상면’, ‘어사 출도’, ‘어사와 춘향의 재회’같은 노래가 포함된다. 이 부분 역시 각 유파가 극적 전개는 비슷하지만 음악의 짜임새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박석고개’에서 이 도령의 심경이 어떤 유파에서는 호기 있고 의협심이 강한 성격으로 묘사되어 있고, 어떤 유파에서는 침착하면서도 회한에 차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면의 표현은 평조, 우조하는 발성법과 평조길, 우조길 같은 선율형태에 따라 그려지고 있다.

B.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²⁰⁾

라 트라비아타는 프랑스 작가 A. 뒤마가 1848년에 발표한 소설로 원제목은 <동백꽃을 들고 있는 부인>이란 뜻이며, 춘회는 여주인공 마르그리트 고티에의 별명이다. 파리의 고급 매춘부로 당시 이름을 떨치고 있던 마리 뒤프레시를 모델로 하였다고 전한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줄거리지만, 당시 사회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담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화려한 귀부인처럼 생활하는 매춘부 마르그리트 고티에는 순진한 청년 아르망 뒤발을 만나 처음으로 참된 사랑을 발견한다. 그를

20) "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0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아르망 또한 열정적인 사랑을 바친다. 둘은 파리 교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수입원이 막히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그녀에게 아르망의 아버지가 찾아와 아르망과 헤어지는 것이 진실로 그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한다. 그녀가 파리에서 다시 매춘부 생활을 하는 것을 본 아르망은, 그녀의 마음이 변한 것으로 오해, 그녀에게 모욕을 주고 여행길에 나선다. 그녀는 실의와 체념으로 지병인 폐병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이 사실을 안 아르망의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한다. 진상을 알게 된 아르망은 사과하기 위해 달려가나 그녀는 곧 숨을 거두고 만다.

이탈리아 작곡가 G.F. 베르디가 <라 트라비아타>로 개작한 3막 4장의 오페라. F.M. 피아베 대본에 의하여 1853년 베네치아에서 초연하였고, 이듬해 재상연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내용은 프랑스 작가 A. 뒤마의 소설과 거기에 바탕을 둔 희곡에서 취재하였고 제목과 등장인물 이름은 바꾸었다. 트라비아타란 말에는 <춘희>의 뜻은 없으나 원래 제목에 따라 춘희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극적인 훌륭한 결구(結構)와 알기 쉬운 줄거리, 아름다운 선율과 애절한 음악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제 1 막과 제 3 막의 전주곡, 제 1 막에서 나오는 '축배의 노래, 비올레타가 부르는 아리아 '아, 그대였던가', 제 2 막에 아버지가 부르는 '프로방스의 바다와 땅' 등의 아리아는 지금도 널리 불리고 있다.

C. 판소리 <춘향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비교

판소리와 오페라는 각각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극음악으로써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각의 극음악의 예로 교과서에 나오는 판소리 중 <춘향가>와 오페라 중 <라 트라비아타>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과 서양의 극음악인 판소리와 오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판소리 <춘향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비교해 보면 <춘향가>는 도령과 춘향의 사랑 내용을 다루고 있고, <라 트라비아타>는 술집여인인 마르그리트 고티에와 순진한 청년 아르망 뒤발의 비극적인 사랑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둘다 남녀의 사랑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극의 내용이 비슷하다. 또한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노래하는 부분, 말하듯이 노래하는 부분, 연기(동작의 움직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판소리에서는 소리, 아니리, 발림이라고 하고, 오페라에서는 아리아, 레시타티보, 연기라고 한다.

반면에 <춘향가>는 1인이 여러 사람의 역할을 맡고 있고, <라 트라비아타> 1인이 한 사람의 역할만 맡고 있다. 또한 <춘향가>에서는 고수의 북장단이 반주의 역할을 하지만 <라 트라비아타>에서는 관현악 반주가 따른다. 이는 판소리와 오페라의 특징이자 두 장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춘향가>의 대표적 곡으로는 진양조 장단에 얹혀진 '긴 사랑가'와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장단에 얹혀진 '자진 사랑가'로 나누어져 있어서 느리고 빠른 노래가 짝으로 구성되는 '사랑가'가 있고 그 외에 '남원경치', '이별가', '옥중가', '어사출두' 등이 있다. <라 트라비아타>의 대표적 곡으로는 제 1 막에서 나오는 '축배의 노래', 비올레타가 부르는 아리아 '아, 그대였던가', 제 2 막에 아버지가 부르는 '프로방스의 바다와 땅' 등의 아리아가 있다.

다음과 같은 비교 내용은 <표 II-10>과 같다.

<표 II-10> 판소리 <춘향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비교

	<춘향가>	<라 트라비아타>
곡의 종류	판소리	오페라
곡의 내용	도령이 춘향을 향한 사랑의 노래	술집여인이 귀족청년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음을 노래
시대적 배경	조선시대 숙종·영종 때	루이 14세 때 (과리)
반주	북 장단(고수)	관현악 반주
대표곡	<사랑가>, <남원경치>, <이별가>, <옥중가> <어사 출두> 등	<축배의 노래>, <아 그대였던가>, <프로방스의 바다와 땅> 등
구성요소	소리, 아니리, 발림	아리아, 레시타티보, 연기
역할	1인 다역	1인 1역
기타	추임새 (고수가 흥을 돋구는 말)	서곡, 전주곡, 합창, 중창 등

② 효율적인 수업방안

한국의 극음악인 판소리 <춘향가>와 서양의 극음악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작품을 가지고 판소리와 오페라의 특징과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비교를 통한 학습을 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 및 학습지도안을 제시해 보았다.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며, 한 반 인원인 40명으로 가정한다.

관소리와 오페라의 비교를 중심으로 협동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표 II-11>과 같이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을 제시하고, 총 3차시에 해당하는 예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표 II-11> 협동학습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1차시	중점 지도 내용	관소리와 오페라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하기
	음악적 목표	관소리와 오페라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 할 수 있다.
	협동학습 목표	효과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협동학습 구조	인터뷰(Interview)
2차시	중점 지도 내용	관소리와 오페라의 대표적 곡을 듣고 느낌 말하기
	음악적 목표	곡을 듣고 느낌을 알맞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협동학습 목표	다른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협동 학습 구조	생각-짝-모듬
3차시	중점 지도 내용	관소리와 오페라의 구성요소 비교하기
	음악적 목표	두 곡의 구성요소를 비교할 수 있다.
	협동학습 목표	모든 학생들이 과제에 충실하고 또래 가르치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협동학습 구조	직소(Jigsaw)- 과제 분담 학습

가. 학습지도안1 (1/3차시)

1. 과제: 판소리와 오페라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하기
2. 음악적 목표: 판소리와 오페라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다.
3. 협동학습 목표: 효과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4. 협동학습 구조: 인터뷰(Interview)
<p>5. 수업전략</p> <p>① 판소리와 오페라에 관한 자료를 시청한다.</p> <p>② 판소리와 오페라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비교한다.</p> <p>③ 인터뷰 게임을 설명하고 시작한다. (학습지 참고)</p> <p>a. 5명이 한 모둠이 된다. 각자 2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한 모둠당 10개의 질문을 학습지에 적는다. 이때 중복되는 질문은 피한다.</p> <p>b. 다른 모둠과 만나서 준비한 질문을 물어보고 평가한다. 이때 질문을 만든 사람이 상대 모둠 중 한 사람을 지목해서 질문을 한다. 반대로 상대 모둠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받는다. 이렇게 두 모둠이 서로 질문을 주고 받는다. 지목 받은 학생이 상대방의 질문에 답을 하고, 답을 못 할 경우 같은 모둠에서 도와준다. 모둠에서도 답을 못할 경우 질문자가 답을 말해준다.</p> <p>c. 친구가 대답을 적절히 하는지 평가한다.</p>
<p>6. 평가관점: 학생들은 판소리와 오페라의 비교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만들 수 있는가?</p> <p>친구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가?</p>
<p>7. 협동학습 구조에 관한 설명: 인터뷰(Interview)</p> <p>인터뷰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질문하고, 친구의 질문에 대답하는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명확하게 인지되는 것이다.</p>

1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판소리와 오페라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 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협동학습의 목표로는

인터뷰의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학생들의 질문은 판소리와 오페라의 비교에 관한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수업방법은 판소리와 오페라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각 음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인터뷰 협동학습을 통해 판소리와 오페라에 대한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

1차시 수업에서 필요한 학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학습지) - 질문과 평가에 대한 예시 답안

질문한 사람	질문내용	대답한 사람	답에 대한 평가					
			A	B	C	D	E	평가 이유
학생A	오페라에서 아리아 부분은 판소리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합니까? 그리고 그 두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학생F			○			오페라에서 아리아 부분은 판소리에서 소리 부분에 속한다. 그 답은 정확히 했으나 두 부분이 노래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해서 모둠의 도움으로 대답했다.
학생B	판소리와 오페라의 구성요소 3가지를 말하고 비교해보세요.	학생G	○					판소리의 구성요소는 소리, 아니리, 발림이고, 이에 비교할 수 있는 오페라의 구성요소는 아리아, 레시타티보, 연기이다. 구성요소와 비교 모두 정확하게 대답했다.
학생C		학생H						
학생D		학생I						
학생E		학생J						

나. 학습지도안2 (2/3차시)

1. 과제: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를 듣고 느낌 비교하기
2. 음악적 목표: 곡을 듣고 느낌을 비교 할 수 있다.
3. 협동학습 목표: 다른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4. 협동학습 구조: 생각-짝-모듬
<p>5. 수업전략</p> <p>① 판소리 <춘향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p> <p>②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를 듣고, 두 곡의 느낌에 대한 비교를 학습지에 적는다. (학습지 참고)</p> <p>③ 짝과 학습지를 교환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자신의 생각과 짝의 생각을 비교하여 본 후, 다시 음악을 들으며 내용을 보충한다.</p> <p>④ 또 다른 짝과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 본 후, 다시 내용을 보충한다.</p> <p>⑤ 지명된 한 사람이 전체 앞에서 토론한 것을 나눈다.</p> <p>⑥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곡을 다시 들은 후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보충하여 적는다.</p> <p>⑦ 각 노래의 느낌을 확인한다.</p> <p>'사랑가'는 춘향과 도령의 사랑의 이야기 중 도령이 춘향을 향한 사랑의 노래이며, '아! 그대였던가'는 술집여인과 귀족청년의 사랑 이야기 중 여인이 혼자서 처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느낀 행복감을 나타낸 노래이다. 두 곡다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노래로 곡의 분위기에서 행복감과 사랑의 감정 느낄 수 있다.</p>
6. 평가관점: 곡의 비교에 대한 알맞은 느낌을 말하고 있는가?
<p>7. 협동학습 구조에 관한 설명: 생각-짝-모듬</p> <p>문제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혼자 생각한 후 일반적으로 학생 중 1명과 짝을 이루어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루어 다시 토론한 후 나눔 시간에 전체 앞에서 지명된 한 사람이 토론한 것을 나눈다.</p>

1차시의 판소리와 오페라의 비교를 통한 수업을 바탕으로 2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를 듣고 느낌을 비교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3차시에 제시되는 판소리와 오페라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기에 앞서, 느낌을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극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협동학습의 목표로는 생각-짝-모듬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때 학생들이 주고받는 정보는 비교에 관한 것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업방법은 판소리와 오페라의 대표적인 곡을 통해 각 음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생각-짝-모듬 협동학습을 통해 상대방과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판소리와 오페라에 대한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2차시 수업에서 필요한 학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학습지) - 예시 답안 제시

나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춘향가> 중 '사랑가'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
곡의 종류	판소리	오페라
반주 악기	북	관·현악 (오케스트라)
곡의 내용	도령이 춘향을 향한 사랑의 노래	술집여인이 귀족청년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음을 노래
느낌	사랑노래답게 도령의 노래 소리에서 기쁨과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사랑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실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다. 학습지도안 3 (3/3차시)

1. 과제: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기
2. 음악적 목표: 두 곡을 통해 판소리와 오페라의 구성요소를 비교할 수 있다.
3. 협동학습 목표: 모든 학생들이 과제에 충실하고 또래 가르치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4. 협동학습 구조: Jigsaw(과제분담학습)
5. 수업전략 ① 각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나누어 준 후, 두 곡의 음악을 들려준다. ② 모둠원 5명이 나누어 주제를 정한다. a. 전문가 1 - 두 곡의 시대적 배경 비교 b. 전문가 2 - 두 곡의 연주형태 비교 c. 전문가 3 - 두 곡의 노래하는 부분과 명칭 비교 d. 전문가 4 - 두 곡의 이야기하듯이 부르는 노래 부분과 명칭 비교 e. 전문가 5 - 그 외의 비교 ③ 각 모둠에서 각각의 주제를 맡은 학생이 그 주제의 전문가가 되어서 연구 주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정리한다. (자료는 학생들이 미리 준비해 온 상태이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하도록 한다.) ④ 각 모둠에서 같은 주제를 맡은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에 대해 토의한다. ⑤ 토론 후 자신의 모둠으로 돌아가서 전문가 모둠에서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가르친다. ⑥ 모둠원들은 주제의 모든 내용을 학습지에 적으면서 두 곡을 비교해본다.
6. 평가관점: 각자 맡은 두 곡의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비교했는가? 자신의 모둠에게 두 곡의 구성요소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7. 협동학습 구조에 관한 설명: Jigsaw(과제분담학습) 하나의 학습 주제를 여러 개의 작은 소주제로 나눈 후, 각 모둠원에게 각각 하나의 소주제를 담당하게 한다. 그 하나의 작은 주제를 맡은 학생이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된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각 전문가들끼리 모여 자신의 담당한 소주제를 탐구한다. 각 전문가는 전문가 집단에서 탐구한 내용을 다시 원래 자기의 모둠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가르칠 책임을 가진다. 결국에는 학생들은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직소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서로 상호 의존하는 협동기술을 배우게 된다.

2차시에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의 느낌을 비교한 것을 바탕으로 3차시 수업에서는 구성요소를 비교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협동학습의 목표로는 Jigsaw(과제분담학습)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가르치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학생들이 상대방을 가르치는 내용은 비교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업방법은 판소리와 오페라의 대표적인 곡을 듣고 구성요소 비교함으로써 각 음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Jigsaw(과제분담학습) 협동학습을 통해 전문가가 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판소리와 오페라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

3차시 수업에서 필요한 학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학습지) - 예시 답안 작성

두 곡을 비교해보세요!		
	<춘향가> 중 '사랑가'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
곡의 종류	판소리	오페라
시대적 배경	루이 14세 때 (파리)	조선시대 숙종·영종 때
반주	관현악 반주	북 장단(고수)
노래	소리	아리아
이야기하듯이 부르는 노래	아니리	레시타티보
동작	발림	연기
역할	1인 다역	1인 1역
기타	추임새 (고수가 흥을 돋구는 말)	서곡, 전주곡, 합창, 중창 등

(2) 종교 의식 음악 -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

한국의 음악인 범패와 서양의 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는 8-9세기 중세시대에 발생한 종교 의식 음악으로 비교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ICT 활용학습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① 내용비교

가. 범패²¹⁾

범패는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는 불교 음악으로 의식 진행시 사용되는 모든 음악을 총칭하며, <범음>, <어산> 또는 <인도소리>라고도 한다.

범패는 신앙심을 토대로 한 것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몸(身), 입(口), 정신(意)을 통해 어우러지는 수행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음악은 사물(四物)과 함께 어우러져 작법과 더불어 청각 및 시각적인 것을 통해 의식을 보다 장엄화시키며, 또한 교리 수행의 방법으로써 신심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범패는 안채비, 바깥채비, 화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채비는 순수 불교적 의식 절차에 불리워지는 소리이며, 바깥채비는 홑소리와 짓소리이다. 일반적으로 불리워지는 범패는 홑소리를 가리키고, 범음(梵音)은 짓소리의 별칭이며 화청은 순수 한글로 불리워진다. 일반적 불교의례 절차는 재의 규모에 따라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²²⁾, 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²³⁾,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²⁴⁾, 수록재(水

21) <http://www.pompae.or.kr>

<http://www.bumpae.org>

22) 죽은 이를 위한 재로 보통 하루가 걸린다. 규모가 가장 작은 재로 49재나 소상(小祥) 또는 대상(大祥) 때 주로 행한다. 범패승들이 처음 범패를 배울 때는 기본이 되는 이 상주권공부터 배운다고 한다.

陸齋)²⁵⁾, 영산재(靈山齋)²⁶⁾로 나누며, 간단한 불공과 시식은 안채비로, 그 외 영산재 등은 안채비와 바깥채비, 화청 모두 불리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바깥채비는 홑소리와 짓소리를 가리키며 대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소리를 배운 스님들에 의해 불리우는데, 홑소리의 사설은 칠언사구(七言四句), 오언사구(五言四句)의 대개 한문으로 된 산문, 또는 범어로 된 진언(眞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짓소리는 짧은 가사로 구성되어 연주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걸리므로 소리를 전문적으로 배운 스님이 부르는데, 이러한 소리를 모두 하는 스님을 어장(魚丈)이라고 한다. 어장은 모든 소리를 자유자재로 하는 것은 물론 의식의 전반적 흐름과 이론에도 밝아야 한다.

안채비 가사내용은 주로 한문으로 된 산문이며 바깥채비 음의 굴곡이 긴 것에 비하여 안채비는 짧은소리를 촘촘히 엮어 나아가는 형식으로 보통 절 안에 있는 병법(乘法)이나 법주(法主)가 4, 6체 형식 문장을 요령을 흔들며 한다.

화청은 안채비나 바깥채비와 달리 일반대중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심곡의 글 형식은 살아 생전 이야기와 사후이야기를 한글로 각기 범패승의 독특한 음성으로 불리워진다.

23) 일명 대례왕공문(大禮王供文)이라고도 하며 상주권공재보다는 약간 규모가 크다. 주로 재수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저승에 있다는 10대왕(十大王)에게 자비를 비는 것이다.

24) 죽어서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생전에 미리 지내는 재이다.

25) 수중고혼을 위한 재이다.

26) 가장 규모가 큰 재로 3일이나 걸리는데, 국가의 안녕과 군인들의 무운장구(武運長久), 또는 큰 단체를 위하여 지내며, 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지낸다. 범패승들이 처음 상주권공을 배우고 각배(各拜)를 배운 다음 마지막으로 영산재를 배운다고 한다.

나. 그레고리오 성가²⁷⁾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로마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 퍼져있었던 다양한 성가들을 수집, 정리하여 그레고리오 성가를 완성시켰다. 중세의 교회 선법에 기초하였으며, 음절적이거나 장식적인 선율이 모두 나타날 수 있고, 라틴어 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사 중에 노래될 때에는 남성들만 부를 수 있었고, 9세기 이후 네우마에 의해 기보되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가톨릭 교회의 제사인 미사 때와 가톨릭 교회의 공적기도인 성무일도 기도 때이다. 미사를 위한 성가집은 "그레두알레"라고 부르며, 성무일도의 성가집은 "안티포날레"라고 한다.

미사란 라틴어의 "미테레(Mittere: 파견하다. 돌려보내다)라는 동사의 여성형 과거분사인 미사(Missa)에서 나왔는데, 즉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견한다는 의미가 있다. 미사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변하지 않는 통상문과 매주일 변하는 고유문이 있다. 통상문(Missa Ordinario)은 키리에(Kyrie: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글로리아(Gloria: 하늘에서는 천주께 영광), 크레도(Credo: 나는 믿나이다), 상투스-베네딕투스(Santus-Benedictus: 거룩하시다), 아뉴스 데이(Agnus Dei: 천주의 어린양) 등이 있으며, 고유문(Missa Propia)은 인트로이투스(Introitus: 입당송), 그라두알레(Graduale: 층계송), 알렐루야(Alleluia: 야훼를 찬미하나이다), 오페토리움(Offetorium: 봉헌송), 코뮬니온(Communion: 영성체송) 등이 있다.

성무일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적 기도로서 대부분 이 기도를 노래로 하였다. 하루를 매 3시간으로 나누어, 그 시간마다 기도를 올렸다. 성무일도는 다음날 아침 미사 전에 있을 묵상을 준비하고 성경과 교부들의 글을 읽는 '독서의 기도', 보통 아침 식사 전 적당할 때 하는 '아침기도', 점심 식사 전에 하는 '낮기도' 저녁 식사 직전에 하는 '저녁기도', 저녁 식사 후 휴식을 취한 다음 각자 자유시간

27) 김문자 외 4인,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1" 심설당, 1999

을 갖기 전에 하는 '끝기도'의 구조로 되어있다.

이상의 기도들이 시편 성가와 안티포나(Antiphona: 대송)와 레스폰소리아(Responsoria: 응송), 힘누스(Hymnus: 찬미가)등 많은 그레고리오 성가로 불린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미사시에 시편을 성직자와 회중들이 낭독할 때 앞부분과 뒤에는 선율이 비슷한 높낮이와 장단이 있고, 중간부분에서는 그저 낭창되는 형태가 발전하여 선율의 모습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정한 규칙의 리듬이 없고 2-3음표마다 나뉠대로의 리듬 규칙에 의해서 리듬이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법(mode)은 현대의 장조와 단조가 확립되기 이전의 것으로 정격(Authentic) 4선법에서 변격(Plagale) 4선법을 추가하여 모두 8선법이 있다.

다.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비교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에서 비슷한 시대에(중세) 종교 의식 음악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한국 음악의 범패와 서양 음악의 그레고리오 성가이다. 이 두 장르의 음악은 8-9세기 중세시대에 발생된 종교 의식 음악으로 불규칙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선율로만 이루어진 무반주 성악곡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범패는 안채비와 바깥채비(훑소리, 짓소리), 화청으로 구성되어있고, 불교 의식 진행 시 사용하는 음악이며, 그레고리오 성가는 미사(통상문, 고유문)와 성무일도로 구성되어있고, 가톨릭 의식인 제사와 기도 시 사용하는 음악이라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 II-12>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표 II-12>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비교

구분	범패	그레고리오 성가
시대	중세시대(8-9세기)	중세시대(8-9세기)
종교	불교	가톨릭(천주교)
기능	불교의식 진행시 사용	제사(미사)와 기도(성무일도)시 사용
연주형태	무반주 성악곡	무반주 성악곡
리듬	불규칙	불규칙
선율	단선율	단선율
구성	안채비 바깥채비(훗소리, 짓소리) 화청	미사(통상문, 고유문) 성무일도

② 효율적인 수업방안

한국의 종교 의식 음악인 범패와 서양의 종교 의식 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징과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비교를 통한 학습을 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지도안을 제시해 보았다.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며, 한 반 인원인 40명으로 가정한다.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ICT 활용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6명이 한 모듬이 되어 모듬별로 1대 이상의 PC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표 II-13>과 같이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을 제시하고, 총 3차시에 해당

하는 예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표 II-13> ICT 학습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1차시	중점 지도 내용	범패의 유래와 음악적 특징 알기
	수업 목표	범패에 대해 알아보고, 그 유래와 음악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ICT 활용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
2차시	중점 지도 내용	그레고리오 성가의 유래와 음악적 특징 알기
	수업 목표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유래와 음악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ICT 활용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
3차시	중점 지도 내용	범패와 그레골오 성가의 특징 비교
	수업 목표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ICT 활용	PowerPoint를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가. 학습지도안 1 (1/3차시)

<p>학습목표: 한국의 의식음악인 범패에 대해 알아보고, 그 유래와 음악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p>		
<p>ICT 활용: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p>		
단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교과서 중심으로 한국의 의식음악 종류와 특징을 설명한다. (대취타와 취타,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범패, 굿음악 등) 	교과서 참고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범패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 음악을 들어보고,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 해 본다. 음악에 담긴 의미, 유래, 기능, 연주형태 등의 특징을 찾아본다. <p>참고 사이트 http://www.pompae.or.kr http://www.bumpae.or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서로 의논한 후 정리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료를 편집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보충지도를 하고, 질문에 답해준다. 모둠별로 만들어진 자료를 발표한다. 만들어진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완성한다. 	<p>모둠에서 모든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 되도록 유도한다.</p> <p>다른 모둠의 발표를 잘 듣고 내용을 비교해 본다.</p>
정리 및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된 자료를 파일에 저장한다. 교사는 다음 수업의 차시예고를 한다.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디스켓 두 장에 저장해서 하나는 교사가, 하나는 모둠이 보관한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과 정리가 잘 되었는가? 범패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모둠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나. 학습지도안 2 (2/3차시)

<p>학습목표: 서양의 의식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유래와 음악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p>		
<p>ICT 활용: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p>		
단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중심으로 서양 의식음악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한다. (레퀴엠, 그레고리오 성가 등) 	교과서 참고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그레고리오 성가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 음악을 들어보고,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 해 본다. 음악에 담긴 의미, 유래, 기능, 연주형태 등의 특징을 찾아본다. <p>참고 사이트 http://www.kumgokcatholic.or.kr http://chant.catholic.or.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서로 의논한 후 정리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료를 편집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보충지도를 하고, 질문에 답해준다. 모둠별로 만들어진 자료를 발표한다. 만들어진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완성한다. 	<p>모둠에서 모든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 되도록 유도한다.</p> <p>다른 모둠의 발표를 잘 듣고 내용을 비교해 본다.</p>
정리 및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된 자료를 1차시 수업에 사용했던 파일에 저장한다. 교사는 다음 수업의 차시예고를 한다.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를 비교 내용을 모둠별로 파워포인트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발표한다는 예고를 하고, 파워포인트의 기능을 미리 익혀올 수 있도록 한다.) 	디스켓 두 장에 저장해서 하나는 교사가, 하나는 모둠이 보관한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과 정리가 잘 되었는가? 그레고리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모둠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다. 학습지도안 3 (3/3차시)

<p>학습목표: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p>		
<p>ICT 활용: PowerPoint를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다.</p>		
단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징점을 이야기 해 본다. 	<p>1·2차시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자료 참고</p>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를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한다. (시대, 기원, 용도, 연주형태, 형식, 선율 등) · PowerPoint를 사용하여 어떻게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지 의논한다. · PowerPoint의 사용방법을 익힌 후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든다.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등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편집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보충지도를 하고, 질문에 답해준다. · 모둠별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 다른 학생들은 발표 모둠의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의문점을 질문하고, 평가한다. · 만들어진 자료를 수정·보완하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둠별로 사용하는 PC의 PowerPoint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 모둠에서 모든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 되도록 유도한다. · 학생들이 다른 모둠의 발표내용을 잘 듣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도록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자료를 1·2차시 수업에 사용했던 파일에 저장하고, 디스켓을 제출한다. · 3차시를 거쳐서 수업한 내용을 교사의 질문을 통해 대답해봄으로써 다시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한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erPoint를 사용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의 내용이 잘 되어있는가? · 수업 내용에 맞게 프리젠테이션이 잘 되었는가? · 모둠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p>교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디스켓에 담긴 내용과 모둠발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p>

1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의 종교의식 음악인 범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ICT 활용 학습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수업방법은 ICT 활용학습을 통해 범패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범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차시 수업은 3차시에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비교의 바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수업이라 할 수 있다.

2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서양의 종교의식 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ICT 활용 학습방법으로는 1차시 때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수업방법은 ICT 활용학습을 통해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그레고리오 성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차시 수업 또한 3차시에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비교의 바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수업이라 할 수 있다.

3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1,2차시에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ICT 활용 학습방법으로는 PowerPoint를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수업은 1,2차시 때 디스켓에 저장된 자료들을 통해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를 비교할 수 있으며, 시청각 매체를 사용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보고 발표함으로써 각각의 음악에 대한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에서 극음악인 판소리와 오페라, 종교 의식 음악인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내용을 비교한 후 이에 따른 효과적인 수업방안을 연구하여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판소리와 오페라는 극음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음악들은 구성요소에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비교를 통한 학습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판소리와 오페라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고, 더 나아가 판소리 <춘향가>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특징과 구성 요소를 비교하여 효율적인 수업방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으로 협동학습을 제시하였으며, 협동학습 모형에 맞추어 비교를 통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협동학습과 이에 따른 학습지도안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고,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진 음악적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는 8-9세기 중세시대에 발생한 종교 의식 음악으로 비교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수업방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으로 ICT 활용학습을 제시하였으며, ICT 활용학습 모형에 맞추어 비교를 통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ICT 활용 학습과 이에 따른 학습지도안은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전달이 용이해지고,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를 통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각각의 내용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비교를 통한 수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Ⅲ. 결론

음악교육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에 발맞추어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의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 중에서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 안에는 '학생은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 안에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여 우리의 음악문화 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문화 유산을 비교하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는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내용에 대한 비교를 제시하고, 또한 이에 따른 효율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교육방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총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를 교과서 중심으로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한 후, 시대별로 비교하였다. 이는 음악사를 시대별로 비교해봄으로써 한국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의 틀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틀의 개념을 바탕으로 음악의 변천과정과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되어 보다 포괄적이고 연계적인 음악사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를 분류하고, 더 나아가 특징에 따른 분류를 하였으며,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 중 음색이 비슷한 악기를 비교하였다. 이는 악기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악기군의 특징에 따른 종류를 구

별하는데 도움이 되고,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 종류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그 중에서 비슷한 음색을 가진 악기를 비교해봄으로써 악기에 따른 음색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 음악 연주 형태와 서양 음악 연주 형태를 설명하고 비교하였다. 이는 연주형태를 비교해봄으로써 한국 음악 연주형태와 서양 음악 연주형태의 틀의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틀을 바탕으로 어떤 곡을 들음에 있어서 그 곡의 연주형태를 구별할 수 있으며, 연주형태에 따른 그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 중 극음악인 판소리와 오페라, 종교 의식 음악인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내용을 비교한 후 효율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하고 예시 학습지도안을 연구하였다. 판소리와 오페라는 협동학습 방법으로, 범패와 그레고리오 성가는 ICT 활용 학습 방법으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음악인 판소리와 서양의 음악인 오페라는 극음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의 음악인 범패와 서양의 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는 종교 의식 음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비교를 통한 학습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를 통한 수업은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는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수업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예시 지도안은 교수-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사가 음악 교과서라는 매개체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교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은 이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의 비교를 통한 다양한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현행교과서

- 고춘선, 홍종건, “고등학교 음악”, 세광음악출판사, 2004
- 윤경미, 문진 “고등학교 음악”, 현대음악출판사, 2004
- 이홍수 외 3인, “고등학교 음악”, (주)두산, 2004
- 정영택, 허화병, “고등학교 음악”, (주)교학사, 2004
- 서한범 외 3인, “고등학교 음악”, 도서출판 태성, 2004
- 김성수 외 2인, “고등학교 음악”, 대한 교과서(주), 2004
- 백병동 외 4인, “고등학교 음악”, (주)천재교육, 2004
- 이강울 외 3인, “고등학교 음악”, 박영사, 2004

2. 논문

- 김원선, “협동학습을 적용한 다양한 음악수업 지도안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3
- 정지민, “고등 학교 1학년 8종 음악 교과서의 비교 분석: 감상 제재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원승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비교연구: 감상곡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박현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1학년 8종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김효주,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비교분석 연구 :감상 제재곡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박경선, “불교음악에 있어서 범패와 찬불가의 음악적 특성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98
- 서정부, “중학교 악교과서에서 서양음악과 국악의 비교 고찰: 국악의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 김유정, “서양음악과 한국전통음악의 음율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 정진균, “오페라의 대본과 판소리의 사설에 대한 비교연구: 현제명의 오페라 <춘향전>과 판소리 <춘향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 최락, “서양 기초발성과 판소리 발성의 비교 ·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3. 단행본

- 이미정, “전공 음악”, 열린교육, 2004
- 이경언,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2002
- 석문주, “음악성 개발을 위한 초등학교 열린 음악수업에서의 협동학습 모형 및 전략 연구”, 2002
- 최은식, “ICT 활용 음악수업”
- 장사훈, “최신 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95
- 이성천 외, “알기쉬운 국악개론”, 도서출판 풍남, 1994
- Donald J. Grout 저,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서양음악사”, 세광음악, 1991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교육부, 문서번호 81160-559

“음악과 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12]

“중등 음악과 ICT 활용 교육 연수교재”

“음악대사전”,세광음악출판사, 1990

4. 인터넷 사이트

www.dongchosori.co.kr

www.pompae.or.kr

www.bumpae.org

ABSTRACT

Comparison between Korean Music and Western Music & A Study on Efficient Lesson Scheme

- Centering around High School Textbooks -

Lee, Hye Jung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be helpful to effective education method by suggesting the comparison about the contents of Korean music and Western music which were recorded in the music text-books of high school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and connective 7th music curriculum to understand music concept through diverse periods and culture areas and by suggesting the efficient lesson scheme to be based on it.

Thus,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analyzed and studied following contents.

First, this researcher tried to suggest Korean music history and Western music history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of music history recorded in textbooks and compared Korean music history and Western music history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Second, this researcher tried to classify Korean instrument and Western instrument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about instrument recorded in textbooks, and tried to compare Korean instrument and Western instrument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and find the instruments that tone quality is similar and compared them.

Third, this researcher tried to arranged the performance form of Korean music and the performance form of Western music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about the performance form of music recorded in textbooks and tried to compare the performance form of Korean music and that of Western music on the basis of it.

Fourth, after suggesting and comparing pansori and opera to be dramatic music, bumpe to be religious ceremony music, and the Gregorian chants out of Korean music and Western music, this researcher suggested efficient lesson scheme, and studied study-guiding-plan indicating beforehand. This researcher suggested study-guiding-plan with cooperating study method about pansori and opera and with ICT-utilizing-study method about bumpe and Gregorian chants.

Conclusion obtained with this study contents is as follows:

Lesson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music and Western music will be comprehensive and connective lesson to understand music concept through diverse the music of periods and culture areas, and guiding plan indicating beforehand through it will be helpful to teaching-study.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that students receive is decided according as how teachers teach students with the contents of

medium to be music textbook. Then, teaching-study method through comparison may be effective education method to meet it. Thus, diverse teaching-study methods of music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music and Western music will have to be studied and developed continuously.